

## 전문대학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design educational field of the college

조 규 명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래픽디자인과

Cho kyu-myung

Gyeonggi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 요약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대학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모색하고자 디자인 교육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디자인교육의 문제점 및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수와 학생,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부서, 산업체,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시제도의 개선, 재정지원의 집중화, 교수자의 연구 지원, 학생의 인식전환,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강화 및 전문대출신에 대한 인식 및 대우개선, 정부지원기관의 차별화된 지원정책 발굴, 대학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디자이너양성 교육은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주체의 내실화 및 관계집단의 인식전환을 고려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 I. 서론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과거에 존재했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를 일원화하여 1979년 단기직업교육기관으로 출범하였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전문대학은 전국적으로 146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년 약 22 만 명이 입학하고 있다. 학생 수는 약 49만 명으로 국내 최대의 단기 직업교육기관이자 4년제 대학과 더불어 국가를 이끌어 갈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1]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심각한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부족,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대학의 진입, 4년제 대학의 실용직업교육으로의 교육방향 전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 대학 등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출현에 따라 입학자원의 유치경쟁 심화로 일부 대학의 경우는 폐교와 정원납입, 학과의 통, 폐합의 상시화 등 다방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대학 디자인교육현장을 둘러싼 관계집단의 실태를 조사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고려한 전문대학 새로운 직업교육의 모델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전문대학 디자인교육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 II. 전문대학 디자인 교육의 현황

### 1. 학생 선발

그 동안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입시경쟁률을 유지했던 디자인분야는 2000년 이후, 지방 전문대학부터 학과의 구조조정을 통한 학과의 통, 폐합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미달로 인한 학과존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적성과 기초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기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수능과 같은 비 디자인계의 전형과 동일하게 전형을 실시하여 신입생 선발을 선발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일부 대학에서 미충원에 따른 디자인학과 폐지 및

교수의 면직 또는 타 분야로 전보시키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미등록의 파장을 전적으로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교적 입시지원 유치가 용이한 서울 및 수도권은 크게 2 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서울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입시지원과 입학자원의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수도권에 비해 유리하여 학생선발에 4년제와 유사하게 학생부와 수능, 실기 전형은 전형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및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적성 및 재능을 겸비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수능(학생부)전형, 수능(학생부)+실기전형, 면접전형(내신+면접), 기타(포트폴리오)전형 제도 등을 통해 입학자원을 선발하고 있다.[2] 다만, 특성화 대학(예를, 디자인예술, 문화산업, 방송분야 등)에서의 전형은 서울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실기전형을 반영해 디자인 교육에 적합한 입시자원을 유치하고 있고, 그 외의 대학은 대부분 일반 계열과 동일한 수능(또는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을 실시하여 개인의 소질 및 적성보다는 학과 정원의 미 충원방지 및 입시경쟁률 강화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었다.

### 2. 교육현장

대학의 디자인교육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크게 교수,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 학생의 핵심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본 연구에서는 3 요소를 중심으로 현황을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 (1) 교수

교수는 오랜 기간 동안 전문대학의 디자이너 양성 교육의 실질적 주체이자 책임자로서, 우수 디자인인력양성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추이가 나타나자 대학에서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투자, 전임교원 충원을 미루고, 교수의 채용도 주로 비 정년계열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었으며, 교수들의 연구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의 산업체 연수나 연구년 제도의 도입을 미루거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교과부의 대학정보 공

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의 역량을 취업률, 재학률, 입시경쟁률, 장학금수혜율 등과 같은 지표상승에만 치중하거나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에 영향을 주는 업적평가에 반영하여 교수의 업무를 가중시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교수도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의 외면, 형식적인 산업체 연구활동, 학생들을 고려한 새로운 교수법개발 활동저조 등이 교육의 질적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행정 및 교육, 실습지원

대학의 교육지원은 주로 인적, 물적으로 행정지원 및 교육, 실습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재정을 명목으로 행정 및 교육실습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및 조교에 대한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성격도 계약직중심으로 한시적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랜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행정 및 교육실습 지원 업무가 단절되거나 업무의 미숙함으로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업무, 평생교육업무,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 각종 인증 평가 제도등 이유로 대학행정이 본연의 교육지원 중심업무보다는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수주중심 행정지원으로 치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교수의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었으며, 교육의 질 제고에 영향을 주는 예산의 투입시기의 획일화, 예산의 규모의 빈약함, 고질적인 관례중심의 예산운영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분야는 관련부서의 디자인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빈번하게 시설 및 장비지원이 다방면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학사제도측면에서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서비스 마인드 보다는 상부기관의 지적을 대비를 위한 관리중심의 학사지원으로 경직된 학사운영으로 디자인교육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 (3) 학생

최근에는 전문대학 디자인과 출신중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배출인원에 비해 과거와는 현저히 적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과거와는 달리 디자인과 입시에 실기고사가 서울지역과 극히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유능한 입시자원도 단기간에 따른 등록금 갈감효과가 있는 전문대학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학생의 대학에 대한 자부심 및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도 과거에 비해 많이 저하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대학 교육현장에서 보편화 된 학생에 대한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디자인교육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 없이 입학하여 기초실력준비 단계로의 인식, 지나친 직업교육에 대한 거부감, 소극적 자기개발 활동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및 산업체에서 전문대학 출신들에 대한 선호도 하락 및 열악한 대우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전문대학 디자인전공 졸업생들이 졸업 후 진로 변경 및 재교육을 받는 등 개인 및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3. 산업체 및 지원 기관

### (1) 산업체

디자인산업은 장기침체에 따라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과거에 비해 저렴해진 디자인료,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자이너 전문성에 대한 가치 하락, 디자인경영자의 미숙한 기업경영 및 국제화에 대한 대비 부족, 경쟁기업의 난립에 따른 등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디자인산업체는 이 같은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의 복합화, 공간의 공동화, 인력의 공동 활용 및 유경험자 중심의 채용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전문대 출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및 낮은 기대감 팽배, 장기고용에 대한 낮은 기대 및 저임금으로 잦은 이직으로 인식도 낮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과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오랜 기간 시행중인 현장실습(또는 인턴실습)의 경우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졸업의 필수학점으로 규정화하기 때문에 학생의 시간 때우기 식 참여 및 산업체 실정 및 참여 학생의 능력과 무관한 고정된 시기, 한시적인 참여시간 획득만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산업체에서도 이제는 의무부진과 피상적인 현장 투입에 따른 사내분위기 저하로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 (2) 정부 및 지원기관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교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으로 그 동안 국가의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디자인 진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해당기관의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기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성 효과가 좋은 연구중심 대학이나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어 국내 디자인인력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는 거의 정부지원정책의 대상에서는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대학을 실상을 고려한 정책개발, 연구과제, 지원사업 등이 형식적이거나 매우 미미한 편으로 전문대학으로서는 정부지원을 통한 디자인교육의 질적 제고는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Ⅲ. 전문대학 디자인 교육현장의 개선방향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문대학은 기초능력의 부족한 입시자원, 재학생의 교육 참여의지 저하, 교수의 업무과중 및 산업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운영, 대학의 지원저조, 졸업자의 과잉공급 및 4년제 출신자와의 차별적 인식 및 산업체의 장기침체, 정부 및 지원기관의 지원미약 등 다양한 악재요인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개선활동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별로 특화된 인재양성 교육에 적합한 선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대학들의 디자인교육에 대한 교육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즉, 실무현장과 동일한 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 산업체 현장 전문가중심의 교수인력 충원, 획일적인 학사제도운영의 개선, 교수의 현장연구 및 교육 활동지원 확대 및 행정 업무경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장차 증진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향상을 위해 전공교육 강화, 교양 지식 습득, 취업분야에 대한 프로세스의 이해, 외국어능력 향상 및 스스로 전문인이라는 자부심을 함양시켜야 한다. 넷째, 산업체는 전문대출신을 해당분야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고 차별적 인식의 전환 및 대우와 복지개선에 힘써 평생직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 및 자기 발전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끝으로 정부 및 디자인 관련 지원기관에서는 그 동안 전문대출신이 국가발전 및 산업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음을 재상기하여 전문대학 디자인학과 및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개발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 [1] 전문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ce.or.kr, 요약
- [2] 진학사, "진학안내 2013", 통권 439호, 요약